

주안에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7
Jul. 2017
Vol.5 No.7

- 임직예배
- 기도학교
- 뉴멕시코 단기선교
- 청년부 소식·간증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꽃보다 아름다운 '주안에 일꾼들'



김복남 장로(맨 왼쪽) 부부와 구승환 장로(오른쪽) 부부가 임직자 선서를 하고 있다.

■ 임직예배

7월 16일 오후 3시 밸리채플에서 주안예교회 첫 임직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500여 명의 성도님들과 가족과 친구들이 참석하여 임직으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을 축하하였다.

지금껏 기자가 경험한 임직예배와는 많이 다른 모습의 임직예배였다. 과하다 싶을 만큼 형식에 치중하기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물질로 부담스러우만큼 드러내야만 해서 이로 인해 마음이 움츠러드는 일이 적지 않았는데 그 흔한 화환도 없었고 큰 행사를 알리는 아름다운 한복도 볼 수가 없었다. <2면에 계속> | 채은영 기자 |

말씀따라 배운 '12가지' 기도 은혜 썩썩

■ 기도학교

햇빛 찬란한 7월 2일 알파인에서 주안예교회는 "기도학교" 세미나를 2박3일 동안 가졌습니다. 이는 기도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7월 1일 주일예배를 끝내고 출발! 각자 카풀하거나 대형버스를 이용하여 움직이게 되었고 인원 점검하시면서 대기하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모두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는 기분이었습니다. <4면에 계속> | 오윤선 기자 |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 임직예배



하나님이 주신 직분, 겸손하게 감당케 하소서...

〈1면서 계속〉 그러나 임직을 받는 분들의 마음은 형식에 치우치지 않을 만큼 겸손했고 보여지는 물질보다 더욱 하나님 앞에서 자세를 낮추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이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다는 마음이 여러 임직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고 많은 성도님들은 교회의 권면으로 임직자들에게 작은 꽃다발도 준비할 수 없었고 그런 빈 손으로 인해 더욱 마음을 다해 임직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에 복이 더해지기를 기도하였을 것이다.

목소리로, 악기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기쁨을 주는 공연과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가자는 듯 여러 목소리가 하나의 아름다운 찬양을 만든 성가대까지, 채플이 세계로 나뉘어있어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만남의 기쁨이 배가되는, 모이기 위해 수고하

였기에 누릴 수 있는 이 감동이 이젠 익숙해지고 있다.

멀리서 사랑하는 마음과 축하해 주고픈 아름다운 동행을 더욱 빛나게 하는 만남의 준비가 매번 빛나는 것은 함께 하는 손길이 늘 어가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처음 연합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한 두 사람의 고된 수고로 되어진 일들이 이제 다섯이 되고 열이 되더니 스물이 되었고 주방은 이제 평일에 불이 켜 있어도 이상하지 않게 되었다. 이날 임직자들과 가족 그리고 축하객들까지 많은 사람들의 만남을 더욱 편안하게 해준 모든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권사님들이 지난 금요일부터 주방의 불을 밝혔고 이를 진두지휘한 장로님과 권사님은 일주일 내내 이래저래 바쁜 일정을 보내셨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여 큰 변화

를 만들고 미소핀 얼굴 하나가 돌이 되고 셋이 되더니 이제 웃음 소리가 문밖을 넘어간다.

2017년 첫 임직예배가 끝나고 여러 손길이 순식간에 교회를 깨끗히 정리하여 무슨 일이 있었나 싶게 만들었지만 이제 주안예교회의 내일은 오늘과 다를 것이다. 모이는 것이 익숙하고 그 준비가 품에 배이듯 주안예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자랑스러워질 것이다. 이날 임직을 받은 71명을 포함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간구한다.



■ 임직예배



"말씀 통해 열심히 살아갈 힘을..."

저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 기도조차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서면 설움에 눈물만 가슴에 차오를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런 갈급한 마음일 때, 하나님께서는 최혁 목사님을 통해 저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다시 열심히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지난 연말에 생각지도 않게 생긴 사고로 어려움을 맞고 보니, 앞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저를 다시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또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신년예배 후 목사님께서 말씀카드를 주셨는데, 마치 제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이사야 46장 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으리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항상 제 옆에 계신다는 걸 또 한번 깨닫고 평안을 찾았습니다. 이번에 주님께서 주신 권사의 직분도 저보다 더 어려움에 처해있는 형제, 자매를 위로하며 도우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닫고, 바로 실천하는 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이순 권사 (LA)

치유와 감사 기쁨이 넘쳐나

20여년을 넘게 주님을 섬겼지만 권사라는 직분은 저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갈망하며 하나님께는 죄송한 마음으로 세상의 일로 고민하고 힘들어 할 때 피택을 받았습니 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육을 받 으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꼈던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고 감사와 기쁨으로 임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믿음과 신뢰... 또한 크게 변한 건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나의 생활에 기쁨과 편안함으로 주님께서 개입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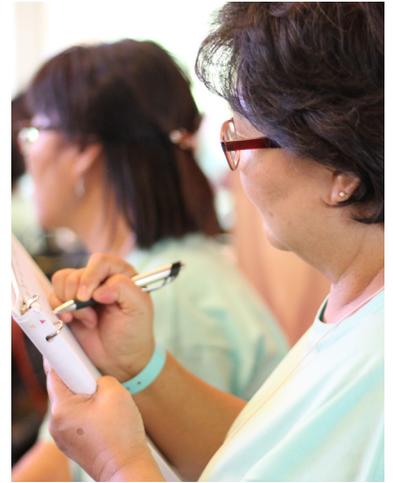
자격없는 저를 세우 주시고 무한한 사랑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불러 주시는 날까지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받는 기효숙 권사가 되고 싶습니다.



기효숙 권사 (플러튼)



■ 기도학교



응답받는 기도... 열매 맺는 삶... 건강한 믿음

〈1면서 계속〉 하나님에 원하시는 기도들을 배우게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서 드디어 알파인 컨퍼런스 센터에 도착! 250명의 참가자와 약 30명가량의 교역자들과 함께하며 우리 각자는 생각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 성도님은 “나의 기도가 어느 곳에서도 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바랐고 또 다른 성도님은 “나의 기도가 응답받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각자 숙소로 향했습니다.

사방으로 둘러쳐진 소나무 숲! 그 속에 아담하게, 소박하게 자리한 산장 같은 분위기! 바람은 시원하게 살랑이었고 부드럽고 신선한 공기는 우리들의 마음을 번잡한 세상의 것에서 먼저 깨끗하게 씻어 준 듯 그렇게 행사의 시작은 진정한 마음으로 드러진 찬양과 최목사님의 전심을 다한 기도도와 마치 영적전쟁을 승리하겠다는 뜨겁고도 열기 가득한 성도님들의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복음기도, 방패기

도, 십자가기도, 부활기도...의 강의를 들으며 하늘을 구하는 복음기도가 우선 되어져야함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첫째 날의 일과는 끝나고 기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은 우리는 서로의 배려에 감사하며 조심스럽게 치장 단장...! 새벽기도 목상의 시간에 아무런 생각 없이 배웠던 기도의 순서들을 생각하며 조용한 시간에서의 성령님의 임재는 강하게 역사하는 듯했습니다.

자유로운 산책의 시간들 역시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의 웃음꽃 피게 하는 대화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나눔은 배운 것들을 바로 생활에, 삶에 적용해보는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기도학교에서 내가 배우야 할 것이 무엇인가?' 를 출발의 순간부터 생각하며 목사님의 강의에 집중해 보지만 나이 탓인가? 피곤한 탓인가? 몰려오는 졸음을 피할 수 없어 하품하는 우리들을 재치 있게 감지하신 최 목사님은 잠 깨는 유머와 신선한 방울토마토, 냉

커피로 생기를 되찾게 해주었고 세상의 모든 일상의 일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나라에만 관심을 갖고자 하는 지식의 열기가 참가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이유 없이 흥분 시켜주었습니다. '돈 없이 어찌 살 수 있을까? 란 걱정 근심 없이 오로지 지금 이 순간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영원히 살고픈다' 란 생각에 혼자 미소지어보기도 했습니다.

찬양 중에 반듯하게 뻗은 소나무 숲 사이로 보이는 높고 푸른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위를 둘러보니 같은 마음으로 손들어 찬양하는 성도님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들을, 추억들을 만들어 주고 있음에 기쁨의 눈물이 울컥함을 느꼈습니다. 소나무향 그윽한 산들바람은 하나님 사모함으로 뜨거워진 우리의 열기를 식혀주며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햇빛은 지금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사인처럼 비추이는 듯했습니다. (10면에 계속)



■ 기도학교

믿음은 들음에서... 기도의 품격이 높아졌어요

햇살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무더운 날의 Big Bear 산장에서의 첫날, 첫 순간부터 세상 것 잠시 뒤로하고 행복을 저장하는 즐거운 날의 연속이었답니다. 특히 강의실이 화트인 마치 막혔던 내 영이 뚫린 것처럼 사방이 유리로 되어 있어 창문을 통하여 볼 수 있는 푸르른 나무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그 장관에서의 배움은 천국의 모형이 아닌가 하였습니다.

첫 시간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함을, 아니면 낭비하는 인생을 산다고 배우면서 시작되었지요. 참다운 신앙과 믿음은 세상으로 가 있는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리며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기도는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며 이땅을 향하여는 죽었고 내가 매순간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되었지요. 기도할 때 놓는 것이 힘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보는 기도, 듣는 기도, 돌려드리는 기도, 부활기도, 방패기도, 액션기도, 등등... 여태껏 평생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연속극 보는 듯 계속 이어지면서 마음이 긴장이 되고 설레이게 되더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강의를 접할 수록 마음이 조율이 되고 기도에 시간을 투자하고

상황, 환경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하고 기도하면 삶이 달라지고 등등... 기도의 품격이 훨씬 높아지게 됨을 배웠답니다. 우리 인생의 신호등과 같은 최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나침반이라고 믿어지니 더욱더 은혜가 되더군요.

영혼 깊숙이 스며드는 그 말씀을 만날수록 머구름 뒤에 맑은 하늘,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고, 마르지 않는 눈물샘이 홍수처럼 쏟아져 답답하고 목마를 때 깎아먹는 오이같은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한번 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기엔 순간 순간을 기도로 알뜰하게 사용하자 하고 하늘을 쳐다보니 밤하늘의 별도 우리를 축복해 주는 듯 하더군요.

나의 목은 영이 떨어져나가고 계속 맑은 영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은 나의 영원한 숙제를 스스로에게 새기며 기도 안에 있는 시간은 고요함, 즐거움을 안겨줍니다 하고 토해내게 되더군요. 현재 완료형에 머물렀던 나의 어설픈 기도들은 이제는 새로운 각도로 미래를 향해 진행형으로 도전하리라 하고 희망으로 부풀었습니다. 이처럼 목사님의 명강의는 새벽공기처럼 신선했으며 우리가 서로 바라보는 눈길이 달빛처럼 순하고 부드러웠기를... 우리의 삶이 욕심의 여둠을 걷어내 좀 더 환해

지기를... 모난 미움과 편견을 버리고 좀 더 둥글어지는 기도를 하리라 하며 입을 꼭 물었답니다. 뒤에서 말없이 기도해주는 사람, 풍파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한결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매시간 땀으로 목욕하시는 최목사님의 양떼를 향한 그 열정은 "내일은 없다. 현실에 충실하자" 라는 진리를 읽었으며 벼랑 끝에서도 기도로, 노래로 다시 일어서는 자가 되자고 구호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2박3일의 여정은 저에게는 마음에 달고 양약이 되는 말씀으로 잔치하는 기쁨을 누렸고 진정한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것임을... '나무는 꽃 한송이를 피우기 위해 일년을 기다리지 않는가! 나는 얼마나 기다리며 기도하였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시더군요. 고드름으로 얼었던 슬픔을 녹여주는 것이 기도의 힘이 아닐까하며 살아갈수록 무게무게 피어오르는 나 자신의 무력함도 진정한 내가 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리라. 아플수록 어두울수록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하늘에 올려드립니다.



김현연A 권사 (벨리)

배운대로 적용해 기도...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

미국에 온지 5년이 조금 넘어 갑니다. 주변의 이민 선배들이 말씀하십니다. 5년 동안이 가장 힘들다고, 5년 넘어가면 힘든 고비 다 넘긴 거라고. 그 조언들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민 생활에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점은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성령 충만한 영적 지도를 받고, 신앙 생활을 하다가 정말 큰 은혜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겠다고 미국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의 신앙 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미국 생활에 적응하다 보니 영적인 것은 자연스럽게 뒷전이 되고 마음이 세상에 더 붙어있게 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갈급한 중에 주안예교회를 알게 되었고, 첫째 주부터 시작되는 회개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다시 시작되어지고 영적 희망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학교 광고를 듣고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날을 사모 하였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 3시간이나 돌아 도착하였지만 자리에 앉아 찬양을 시작 하자마자 주님께서 제게 찾

아 오셨고 충만한 기쁨과 감사함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최혁 목사님의 12강을 들으면서 모든 강의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최혁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점인데, "누군가가 내 영적 생활에 대해서 고자질(?)을 하나?" 싶을 정도로 내 가슴을 찡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내 주님께서 "경숙아! 이렇게 내게 다가오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산장을 내려온 후 매일 아침 기도합니다. 기도 학교에서 배운 순서대로... 내 주님과 함께 하는 아침 시간이 더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지금 제 생활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응답이 시작됐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날마다 느껴지고 있습니다. 가정도, 비즈니스도 변화하고 있고, 5년 동안 저를 지켜보았던 가까운 지인들도 그 변화에 함께 놀라고 함께 기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게 가장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도 보내 주시고, 작년의 통관 실수로 \$15,000의 패널티가 주어졌었는데, 기도학교

를 다녀온후 \$100로 다운 되었습니다. 담당 통관사님이 전화가 와서 하시는 첫 마디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도 많이 하셨나봐요." 라고 시작하시며 이 소식을 전해 주셨다. 통관사 30년 생활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게다가 미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표현 하시더군요.

저는 행복합니다. 교회를 찾을 때 새로운 말씀, 새로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과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는, 정확히 성경의 기록된 말씀대로만 하시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주안예교회가 딱 그런 교회였습니다. 너무나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모잡혀 계신 최혁 목사님, 감사하고 멋지십니다. 목사님을 존경하는 우리 딸 이레권사(?)의 표현으로 마치겠습니다. "엄마, 지구상에 하나님을 이렇게 멋지게 소개해 주시는 목사님이 몇 분이나 계실까?"



안경숙B 집사 (플러튼)

■ ICY/EM 단기선교



메마른 땅, 하나님 사랑 단비되어...

매주 토요일 특별기도모임으로 시작된 단기 선교 준비모임은 6월 19일 월요일 일일 트레이닝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뉴멕시코 단기선교가 시작되었다. 바로 앞서 치른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의 주력 부대로 헌신했던 ICY(중고 등부)와 Logos(E.M)가 다시 뭉쳤다.

6월 25일 주일예배 후 플러튼채플로 모인 팀원들은 출발 전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을 동감하기 위한 열린 마음을 의뢰하였다. 16시간의 기차여행이 우리가 추억하는 수학여행과 많이 달랐다는 걸 선교에 필요한 물품과 현지 기동성 때문에 12시간동안 운전하여 당일 밤 12시에 도착했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월요일 아침에 도착한 팀원들의 함박웃음에 불편했을 시간을 전혀 짐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지 선교사님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밀그림을 그리며 첫예배로 우리의 계획과 기대 등 모든 기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내어드리기로 했다. 오후 스케줄이었던 노방전도를 취소하고 손이 모자라 방치되어있던 선교센터 곳곳의 곳은 일들을 몇시간 동안 한 결과 웬지 여수선해 보였던 선교센터가 산뜻해졌다. 저녁때까지 이어진 육체노동 뒤 저녁예배와 첫 기도모임을 드리며 다시 또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불과 몇 시간밖에 눈을 붙일 수 없었고 붉은 휴먼지를 뒤집어쓰고도 샤워를 할 수 없었지만 아이들을 웃고 있었다. 하루 세번의 예배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기를 기도하며

셋째날부터 시작된 노방전도는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시는 하나님 덕분에 4~5월의 날씨와 우리보다 더 행복한 웃음으로 맞이해 주는 현지 아이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다.

사전답사 때부터 현지 선교사님의 손발이 되어 드리겠다 약속했던 우리는 나바호인들의 천막예배에 참석하였고 이성우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그 말씀을 현지인들은 가물어 메마른 땅에 내린 단비처럼 말씀을 빨아 들였고 어깨를 짓누르던 삶의 무게를 내려놓았고 우리는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했다. 23년동안 성경책을 들고 다녔지만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없다고 눈물흘리는 이 분들을 마주하며 미안함, 부끄러움 그리고 안타까움이 넘나들었다.

시작인가 했더니 벌써 마무리가 된 단기선교는 앞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을 마치고 아이들과 눈물의 작별을 한 그 밤 저녁예배와 이어진 기도시간은 쉬 멈추지 않았다.

선교센터를 나선지 18시간만에 플러튼채플로 돌아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 어디에나 소리없이 한결같이 지지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맛난 음식에 실려있는 관심과 사랑에 아이들은 생글 생글 미소를 날려 준다.

기도로 함께 한 부모모임을 포함한 교육부 담당 장로님, 권사님들 그리고 여러 집사님들까지 빛처럼 바람처럼 곁을 지켜주셨음을 확인하며 감사예배로 뉴멕시코 단기 선교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 채은영 기자 |

■ ICY/EM 단기선교



His Way



Before mission, I was hesitant on going because I didn't know if I could do well as my heart wasn't in the right place. At healing camp, I got saved and so blessed but after healing camp, I started going back to my own life consuming myself with all the distractions around me. So up till Mexico mission I didn't feel as if I could do a good job in helping these children to know about God. But I just went with two goals: to be saved again and for at least one kid to know about God.

When we arrived there, I was already getting excited to meet these kids so I was looking forward to outreach. During VBS, I was constantly chasing the kids around and playing on the playground, trampoline, etc. Since VBS was cut down to one day, I decided to do everything the kids wanted to do because I didn't know when I would have a

chance to be with them again.

On the third day of mission, during the night session, where everyone was crying and singing all together, I felt so happy and felt as if God was bringing me back to him. From then on, I wanted to hold onto his faith and never fall back into the worldly distractions. At the end, I wanted to spend more time with these kids.

Spiritually, I was having a hard time holding onto my faith so even though I had doubts of going, I just took it as an opportunity to serve others and to focus on God. Throughout this one week, I realized that even though I didn't have the heart to love these people, even in my simple God used me. It wasn't my wisdom or strength that he used. It was His way.

It was a blessing being able to spend time with these children and with ICY. I think it's such an advantage to be able to go to a different state to share the gospel message. When they see you, their hearts are open and interested in talking with you. This gives us an opportunity to freely share God's word and his love for them. The gospel to me means that God is always here for us through whatever and whenever and that he will always love us no matter what. **Nicole Hong(LA ICY)**

Connected

My heart before the mission was very dry for God, almost like I didn't want Him in my life and I had doubted a lot. I wasn't in a good place, but I didn't realize it just yet.

During the mission trip I haven't made a connection with any of the kids during the outreach so I had given up for VBS, but then I met two very kind girls. They were Talia and Mariah I actually reached out and started to talk to them first. I believe that God put that in me because I usually never talk to people first, but in the end it payed off I had made a connection with these two girls, and not only them but also the kids in my group.

God really spoke through me in this mission, and I learned so much, not just about who God is but how he works through us. I have changed from a person who was antisocial to a person who talked to others and started conversations and connections with them.

Now coming back from the week long mission trip, I want to not only have the same conviction for God I had then but also to earnestly pray for others so they will not lose their focus. Also to not forget what I had over in Gallup and remember what God did and to come closer with our family in Christ. **Megan Kang(Valley)**



■ 임마누엘 성가대 모임

배려와 이해하는 마음 모아 '화목의 하모니!'

지난 6월 25일 이방길 장로님택에서 임마누엘 성가대원들을 초대하여 주시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모처럼 성가대원들이 친목하며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장로님 택은 이해령 권사님이 1975년 고등학교 1학년때부터 지금까지 43년간 살고 계신 곳으로 구석구석이 오직 주님께 헌신하기 위하여 준비된 곳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뒤뜰에는 아름답게 가꾸어놓은 정원이 짙은 녹색을 띠고 계절에 향기를 더하듯 각종 과일나무들이 자라서 지상낙원을 이루고 있었고, 탐스럽게 익은 과일들을 보면서 -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장로님 택에 부족함 없는 은혜로 풍요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했습니다.

찬양하며 받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7080세대들도 성가대 은퇴를 마루고,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보이시지요? 그리고 연습시간부터 호흡을 조절하며 충분히 공기를 마시니까 폐활량도 높아지고 건강해지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성가대의 특징은 긍정적인 인격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합해진 곳입니다. 잘난 사람과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동글게 다듬어 맞춰가기에 화음과 화목을 이루며 웃음이 끊기지 않는 곳입니다. 온몸으로 헌신하시는 지휘자와 반주자의 모습과 임원진들의 봉사활동을 보면서- 믿음으로 바치는 기쁨은 받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고 보람된 행복이라 느끼게 됩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최혁 담임목사님께서 특별 출연(?)하시어 기타로 찬양을 연주해 주시며 모두 함께 여러 곡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은혜로운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대원들이 모여서 주안에서 함께 찬양하며, 감사와 은혜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가대원이 되며, 찬양을 통해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성령님이 부어 주시는 참 기쁨을 함께 맛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 김신실 기자 |

■ 벨리 안수집사회 모임

새로 임직 받은 집사님들 환영과 격려 '훈훈'

벨리안수집사회(회장 김경배 집사)가 지난 7월 18일(화) 저녁 7시 정기모임을 갖고, 새로 임직하신 8명의 집사님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16일(주일) 임직식을 마치고 이틀만에 가진 모임으로 새로 임직하신 8명을 포함하여 모두 23분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2시간동안 식사와 함께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최혁 담임목사님께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시어, 안수집사회가 항상 중앙에 서서 교회의 모든 일에 솔선하여 감당해 주실 것을 권면해주셨다.

식사 후에 가진 2부 순서에서는 기존 안수 집사님들의 자기소개와 권면의 말씀에 이어, 신입 안수집사들의 자기소개 및 각오 등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 함께 앞으로 교회의 일꾼으로써 열심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양국민 목사님으로부터 앞으로 안수집사로써 해야 할 일을 설명 듣고, 이성근 총무 집사로부터 필수적으로 봉사할 내용을 전달받고 예외 없이 봉사해 주실 것을 권면 받았다. 김경배 회장은 소감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로 오늘 새 일꾼이신 안수집사님들과 첫회



동을 갖게 된 것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안에교회"에 축복이 깃들인 날임을 확증하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회원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일꾼이자 교회의 필요에 따라 부름받은 자로써 헌신과 봉사로 교회를 섬기며, 서로에게 격려와 도움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 회원님들께서는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적인 은총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이란 믿음에 대한 논리적 추론은, 성령님의 touch에서 인

지되는 경험이지 과학적 사고를 거쳐 이해되는 지혜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실제적인 은혜로 획득되는 체험임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밝혔다. 양국민 목사님의 축복기도로 모임을 마치며, 이제 벨리안수집사회가 더욱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간다는 각오로 결단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 이광영 기자 |

■ 미디어국(LA채플)

섬세한 터치·보이지 않는 헌신 ‘오직 예배’

주안에교회는, 영상예배로도 충분히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 시켜나가고 있는 예배 중심의 교회, 말씀중심의 교회이다. 따라서 예배의 준비에 필요한 모든 순서를 담당하는 예배국과 더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역국인 미디어국을 소개해 보려한다. 이번에 소개하려는 미디어국은 세 채플 중에서 특별히 엘에이 채플을 섬기고 있는 엘에이 미디어국이다.

문성훈 국장님을 중심으로, 이정은 팀장, 김민재 부팀장 외에 총 9명의 팀원들이 섬기고 있으며 우선 예배를 위한 자막과 영상을 준비하는 일과 자막준비를 위한 배경디자인, 즉 설교말씀을 위한 성경구절 자막과 찬양자막준비와 함께 예배관련 영상물 준비까지를 순서에 맞게 화면에 내보내는 작업을 하는 사역국이다.

비디오 카메라 촬영과 녹화 까지도 완벽하게 소화해 내는 엘에이 채플 미디어국은 항상 은혜롭고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위해 예배 전후로 쉬지 않고 움직



이고 있으며, 그들의 수고가 겉으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그런 조그마한 섬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강하게 느껴보는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한다. 아주 작은 터치 하나도 떨리는 마음으로 올려 드리고 싶은 엘에이 채플의 미디어국 팀원들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모두가 소중한 가족같이 느껴짐을 고백하기도 했다.

한명이 아닌 팀으로, 함께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이 자리가 그들의 실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영광과 은혜만을 나타내는 자리임을 잊지않고 늘 감사함으로 예배준비에 임하는 엘에이 채플의 미디어 팀 위에,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하시길 기도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오희경 기자 |

■ 코람데오 주안에만남

통통 튀는 개성·재치 있는 젊음 ‘교회 활력소’

6월 25일 오후 1시 30분, 엘에이 채플 친교관에서는 화끈한 날씨만큼이나 에너지가 넘쳐나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한어청년부에 그동안 새로 들어온 친구들을 공식적으로 환영해주는 "코람데오 주안에만남" 이 기대만큼이나 부푼 마음으로 막을 올리는 현장이었다.

먼저 이현욱 목사님의 기도로 순서가 시작되었으며, 이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의 집중력의 유지(?)를 위해서 곧바로 식사시간이 이어졌다. 식사는 코람데오의 부장을 맡고계시는 민에스더 권사님과 박병선 총무 집사님의 수고와 헌신으로 훌륭하게 준비가 되었고, 덕분에 봉사자를 포함한 30여명의 참가인원은 행복하게 육의 양식을 즐길 수 있었다.

한편 테이블별 식사순서를 정할 때에는 가위바위보 게임으로 정해졌는데, 벌써부터 한마음으로 일치됨을 자랑이나 하듯이 같은모양이 반복적으로 나와서 오래도록 우열을 가리지 못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식사 후에는 새가족팀장의 직분을 맡고있는 이정현 자매의 기타 인도로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온몸으로 표현해내기도 했다.

최혁 담임목사님과 함께 한 자기소개와 퀴즈



타임에는 각자 통통튀는 개성과 재치로 마음껏 젊음을 발산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안에교회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다. 목사님께서서는 주안에교회의 채플 소개와 더불어서 목회비전으로,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두번째로는 선교와 구제에 발란스가 맞추어진 교회를 강조하시면서, 앞으로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잡아 주셨다.

끝으로 김윤영 간사의 주안에 훈련에 대한 단계별 안내가 있었으며, 바로 주안에 만남에 참여하고 있는 이자리가 주안에 훈련의 첫번

째 단계에 속하므로, 이미 훈련은 시작되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이정현 팀장의 코람데오와 새가족팀 소개로 공식적인 행사는 마무리 되었고 2부에는 즐거운 게임으로 행복한 만남의 시간이 계속 되었다. 무엇보다도 젊음으로 무장된 신앙생활을 결단한 코람데오의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이들이 받는 모든 교육을 통하여서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해본다.

| 오희경 기자 |

■ 칼럼

사람들 앞에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25년 전에 여름 수양회를 끝내고, 나는 강사 목사님이셨던 정필도 목사님을 아침 대접해 드리며 여쭙어 보았다.

“목사님, 대살로니가전서 5:16-18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안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일을 사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요?”

그 때 내 사무실 책상에는 갈라디아서 2:20 크게 써 붙이고 있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무실 책상에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마다 읽었던 구절이었다.

“억울한 나는 십자가에서 지금 죽었어”, “체크 아웃이 없고, 크레딧 카드 하나 없는 나는 지금 십자가에서 죽었어”, “아픈 아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사무실까지 데리고 가면 어린이 입장 금지라는 영롱한 사규를 만들어 내게 들이대는 야비한 상사 앞에서 나는 죽었어”. 나는 매일 죽고, 죽고, 죽었었다.

최혁 담임 목사님의 “가치혁신의 원리”에서



그 대답을 들으며 나는 혼자 웃었던 기억이 있다. 맞아! 우리나라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고 했지. 하루에 몇 번씩 읽어도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눈 앞에 대답을 놓고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다.

내 삶에 커다란 풍파가 왔을 때 나는 사람들 앞에서 침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입을 떴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 앞에 순종 할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나는 말

씀 공부 받을 차례로 두드렸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내가 말씀을 찾아 헤메이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통해서라도 들어야 할 말씀 테이프(그 때는 테이프였다.) 몇 개나, 책을 내 손에 쥐어 주시는 것이었다.

30여 년 전 미국에 잠깐 오셨던 박영선 목사님과 그룹 공부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강해 설교만 듣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 또 다른 각도로 말씀을 대하게 되었다.

말씀을 사모하며 나갈 때마다 흡족히 채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도 책을 많이 읽으시는 목사님들 앞에서 공부할 수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한다.

주석 책들도, 교리 책들도 이즈음 나오는 책들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나와서 옛날 인쇄된 책들이 손에서 떨어진다. 단지 은퇴한 사람에게 책값은 부담이 되니 교회 안에 작은 도서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함께 돌아가며 책을 읽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나에게만 있을까? | 이예스더 기자 |

■ 소그룹 모임을 위한 쿠킹 아이디어

신선한 채소를 주재료로 사용해 탄수화물을 줄인 건강식으로 조리방법이 쉽고 간단해 부담없이 상에 올릴 수 있는 호박 파스타 요리를 소개한다. / 박창신 기자

재료

길게 채썬 호박 2 컵(국수처럼 길게), 잘게 부신 아몬드 ½ 컵, 버터 1 큰술, 올리브 오일 1큰술, 얇게 저민 버섯 1컵, 채썬 양파 ½ 컵, 반으로 토마토 반방울토마토 1컵, 휘핑크림(heavy whipping cream) 1 & ½ 컵, 잘게 썬 생 바질(Fresh Basil) 1컵, 소금과 후추

조리법

1. 깊고 큰 팬에 버터와 올리브 오일을 넣고 중간불에 버섯과 양파를 함께 넣고 양파가 살짝 부드러워 질 때까지 약 5분간 익힌다. 방울 토마토를 넣어 5분정

풍성한 여름저녁을 위한

호박 파스타 Zucchini Pasta



도 더 조리하여 토마토가 익기 시작하면

2. 불의 세기를 중약으로 줄인 후에 위의 1번에 휘핑크림, 호박, 바질을 넣고 5분 정도 저으며 호박이 살짝 익어 부드러워 지도록 조리한다.

3. 2번에 기호대로 아몬드, 소금과 후추를 더하면 저탄수화물 호박파스타 요리가 완성된다.

*칼로리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보리빵과 함께 잘 어울린다.

〈4면서 계속〉 시간들은 어느새 공수가 활을 당겨 쇠속 소리를 내며 소나무 숲을 가르며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날아가 어느 산장의 입구에 꽂혔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이 다음 찾아야할 곳을 내게 알려주듯 그곳의 분위기는 온화하면서도 뜨거운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진주 같은 말씀들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왔고 피곤함과 식곤증을 느낄 새도 없이 강의는 박차를 가하며 웃음과 생생함의 진리의 말씀 속으로 우리 모두 압도되어 빠져들어 갔습니다. 단 한 번의 시선도 놓칠새라 호흡을 조절해가며 귀 기울여 노트해가는

우리를 보신 하나님은 분명 그 자리에서 지켜보시며 흡족해 하셨음을 믿습니다.

늦은 밤까지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리 지킴하며 더 듣고 싶었지만 인간이기에 힘이 필요함에 각자의 숙소로 돌아갔지만 자신들이 받은 은혜의 감동 속의 여운은 서로의 경험담을 얘기하느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반드시 이단에 빠지게 됨은 물론이고 사단에 사로잡혀 자신의 삶을 과경으로 이르게 함을 가슴 깊이 깨달았기에 목사님이 강조하는 말씀 읽기, 기도생활, 복음 전하기를 반드시 행해야 함을 그리고 악한자의 손에 붙들려 영혼이

파괴되어 가는 자들을 구원해 내어야만 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켜야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잘 교육되었던 지식인들도 이단에 빠지게 됨도 그들의 영혼이 은혜를 입지 못했기에 하늘나라 지식을 받아들일 수 없었음에 불쌍함이 들었고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들은 이 여정 속에 세상에서의 의, 식, 주의 모든 문제들의 사건 속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말씀양식만을 구했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삶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 여행지 시리즈#3 Rocky Mountain National Park



1300피트 고산 등정... 30분이 멀다하고 날씨가 급변

록키로 가는 길은 그 높이 만큼 험난함을 예고하고 있었다. 새벽 6시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일찍 서둘러야 했기에 3시경부터 일어나 출발 준비를 했다. 레드우드에서 렌트 한 차량 반납을 해야 하고, 이미 샌프란시스코까지 몰고 왔던 개인 차량도 장기주차료를 시켜 놓아야 안심이기엔, 속이 타들어간다. 우여곡절 끝에 출발 15분전에야 시큐리티 게이트를 통과했다. 땀이 비 오듯, 레드우드 트레킹보다 공항 트레킹이 더 힘들게 느껴진 새벽 시간이었다.

덴버의 하늘은 맑게 보였지만 다른 번개가 치고, 비행기 창 밖 저 멀리 보이는 록키 산맥에는 아직 상당부분 눈이 녹지 않아 트레킹 여정이 녹록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특별히 문순기후에 접어든 록키 산맥 주변엔 30분이 멀다 하고 날씨가 급변하고, 트레킹 출발 지점이 9,000피트이고 목표지점이 13,000피트이기엔 고산증에 대한 걱정과 눈 속 트레킹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공항에서 일부 필요한 장비와 캠핑에서 써야 할 장비와 음식들을 장만한 후 록키마운틴 국립공원의 서쪽 입구인 에스테스 파크로 이동하였다. 이른 저녁을 먹고 고산지대 적응을 위해 알파인 비지터센터(12,000피트)에 들러 가벼운 몸풀기 하이킹을 하기로 했다.

툰드라 지역인 이곳엔 곳곳이 아직 눈에 덮혀 있고, Timber Line(수목한계선) 위로 툰드라의 거센 바람이 가뜩이나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는 대원들의 발걸음을 더디게 했다. 몸풀기와 적응 단계이니 만큼 대략 1시간 정도의 하이킹으로 저녁 석양을 바라보며 걷는 툰드라 힐링 하이킹으로 만족을 해야 했다. 오늘 밤을 잘 지내고 내일부터 이어지는 고산 트레킹에 잘 버텨 주기만을 기도할 뿐이다.

콜로라도 주에는 14,000피트가 넘는 고산이 무려 58개나 존재하는 명산들이 즐비한 곳이



다. 그 중 한곳의 패스를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기에 주저함 없이 목표까지 오르기로 했다. 아직 눈이 많이 쌓여 있기에 아이젠은 필수, 추위에 견딜 패딩점퍼(6월말에 겨울 패딩), 윈드자켓, 여분의 양말과 옷 한벌, 행동식과 약 1갤론 정도의 물 등 이미 배낭은 어깨에 부담을 주기 시작했다.

베어 레이크를 지나 2마일 정도 숲속 길을 걸으며 오르기 시작해 플랩탑 마운틴 패스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숲속 그늘에 가려진 트레일은 눈이 쌓여 있어서 트레일 자체가 확인되지는 않지만 발자국들이 남아 있어서 목표지점을 향해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출발 후 10,000피트 지점을 지나자 벌써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배낭 무거운 때문인지 대원 중 1명이 고산에 대한 반응을 보였다. 무엇보다 팀원의 안전을 위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산행을 책임진 리더로서 가져

야할 당연한 일인데, 이상하리만큼 내 판단으로 결정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쭙잖은 생각이지만 대부분의 산행기간 중 예배는 참으로 버거운 일이다. 팀원 전체가 신앙인이 아닐 경우가 태반이고 있다고 해도 적절한 시간을 마련한다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얻은 지혜가 1분 예배였다. 모든 예배적 절차와 순서를 생략한 채, 단지 1분간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으로 예배를 마치는 나만의 홀로 예배이다. 대원들에게 고통이 아닌 오히려 힐링의 산행이 되게 해 달라는 것으로 예배를 마쳤다. 그 1분 때문에 내가 내려야 할 기초적인 결정을 모두 유보한 채 그저 그분께 맡기며 나머지 산행을 진행해 나갔다. 누구나 고산이 아니더라도 오르는 길은 힘들게 마련이다. 그런데 13,000피트가 목표이지 않은가, 아주 아주 힘겹게 거친 숨을 몰아 쉬면서도 느리지만 꾸준히 따라오는 대원들을 볼 때 감사했다.

눈길을 한참 올랐다. 패스에 도달했다. 바윗덩어리로 이루어진 산, 그래서 록키인데, 그 명성에 걸맞게 풍광은 웅장하다. 절벽을 내려다보니 저 협곡아래 에메랄드 호수가 보인다. 툰드라의 환경속에서 쌓였던 눈들이 녹아 흘러 모인 옥색빛깔의 에메랄드 호수, 그 맑음과 청량함에 어느 누가 감탄하지 않을 수 있을까. 바위들로 이루어진 산, 그 속에서 아주 작은 꽃들이 이 추위와 강한 바람결에 살아 남을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키는 1-2cm정도 밖에 안되지만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드넓은 산 정상 위에서 색색의 채색 옷으로 향연을 베풀어주시니, 세상을 창조하신 그 분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찬송가의 고백처럼 이 산지는 여호와와의 선물 그 자체였다.



윤성문 집사



주안에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첫 출석 때 그 평안함... 새가족 마음으로 섬겨요"

참 목사, 참 교회, 참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달라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안에 교회로 인도해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주안에 교회를 들어섰을 때의 그 평안함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느끼는 평안함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낯설고 어색한 식사 자리에서 환하게 웃으시며 대해 주시는 이현욱 목사님과 서정아 전도사님, 새가족 식구들의 진심과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저는 새가족을 섬기는 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국장님과 팀원들의 배려가 없었던 어찌던 지금 이자리에서 이들과 함께 섬김의 기쁨을 함께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아시고 새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먼저 이들과 한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위해 오셨듯이 나서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해주세요. 새로 오신 분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권사님을 통해 섬김

의 분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신지 얼마되지 않는 분이 혼자서 식사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희들중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고 돌보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새가족을 섬기면서도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식사시간에 혼자 외롭게 드시는 그분에게 권사님께서서는 먹을 것을 갖다드리고 챙기시는 모습을 보고 섬김이라는 것이 말이 아닌 마음과 행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후로도 그 권사님은 교회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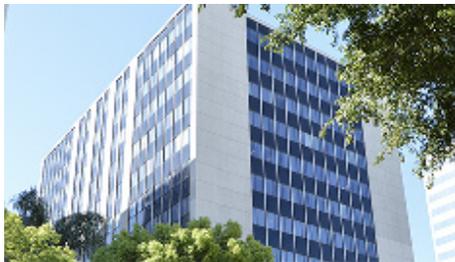
새가족국에서는 예쁜 그릇에 정성스레 준비해온 반찬들을 담아 새로오신 분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팀원들이 돌아가면서 반찬을 2가지씩 준비해오는데 어느 누구도 불평 한마디 없이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반찬을 만들고 그릇을 씻는 일들이 수고로우수도 있지만 팀원들은 참으로 행복해 합니다. 반찬을 넉넉히 준비해와서 나눠 먹으며 함께 식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부족한 저희가 얼

마나 섬기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이 기쁘고 새로오신 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지요. 우리들의 말 한마디를 함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면, 우리의 섬기는 행동 하나에 있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진정으로 다가선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각자의 말은 자리에서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작은 일부터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 주위는 알게 모르게 변화되지 않을까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김과 배려로 나 자신부터 마음에 변화를 주다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다른 환경에서 살았기에 모두가 만족하기는 불가능하겠지만 서로 배려하고 참으며, 협력하여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은일에 충성한 자들이 아닐까요.



최승희 집사 (LA)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밸리채플/ 1부 오전 8:00, 2부 11:00
LA채플/ 1부 오전 8:00, 2부 10:30
플러튼채플/ 1부 오전 8:00, 2부 11:00

영성
집회

수요영성집회/ 저녁 7:30 플러튼채플
목요코람데오예배/ 저녁 7:15 LA채플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 밸리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LA채플/ 새벽 5:30(월-금)
플러튼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교육부 예배시간(교회학교, 중고등부)

밸리채플/ 주일 오전 11:00, 금 저녁 7:30
LA채플/ 주일 오전 10:30, 목 저녁 7:15
플러튼채플/ 주일 오전 11:00, 수 저녁 7:30

Logos(영어청년부) 밸리&플러튼채플/ 주일 오후 1:30

Coram Deo(한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전 11:00
LA채플/ 주일 오전 10:30, 플러튼채플/ 주일 오전 11:00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LA채플 LA Chapel

3460 Wilshire Blvd, Ste 700, Los Angeles, CA 90010

플러튼채플 Fullerton Chapel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주안에" 2017년 8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이광영(국장), 김신실, 나형철, 박창신, 박희정, 오병순, 오윤선, 오희경, 이예스터, 이지현, 조성운, 조용대, 채은영(기자)

안동윤, 양영, 브라이언 조, 남성우, 정인섭(사진) | 편집디자인: 김윤영